

새로운 시작, 또는 도약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카길애그리퓨리나 양계사업부_ 임진혁



2018년 상반기 공채 시즌이 시작됐다. 공공 및 민간 분야 다수의 기업들이 속속 상반기 채용 일정에 돌입하고 있다. 몇 백 명 모집, 몇 천 명 채용 등 언뜻 보면 많아 보이는 채용 인원, 그리고 여기저기서 쏟아내는 채용 공고들이 '취준생'(취업준비생의 약칭)들의 마음을 술렁이게 하는 시기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같은 마음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선배로서 채용 소식을 접하는 마음이 마냥 편하지는 않다. 쏟아지는 채용 소식들에 취업의 기회가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막상 내가 서야 할 곳, 내가 설 수 있을 한 자리를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기 때문이다.

“나침반은 흔들리면서 방향을 잡는다.” 취업준비를 하면서 ‘무슨 일이 하고 싶은지’, ‘어떤 일이 맞을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고 방향할 때 힘이 되었던 문장이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는 “취업은 움직이면서 방향을 잡는다.” 라고 바꿔 말하고 싶다.

이 글을 쓰는 본인은 현재 카길애그리퓨리나 양계 사업부에서 영업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내가 현재 직장에서 영업 업무를 하기로 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학시절에 다양한 활동을 해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료 영업’이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갖기 전까지 본인 역시 대부분의 다른 친구들처럼 전공을 살릴지, 새로운 길을 찾을지, 대학원을 갈지, 취업을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방향했다. 심지어는 취업을 할 수 있을지도 걱정됐다.

그럴 때일수록 대내외적인 다양한 활동들이 진로를 잡는데 도움을 주었다. 대외적으로는 다양한 아르바이트와 전국 대학생 생물학 심포지엄, 축산 연구기관에서의 인턴, 축산물품질평가대회 등에 참여하여 다양한 직군과 직무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선호도와 국내 1인당 육류 소비량 증가세가 증명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인 ‘축산업’에 확신을 가졌다. 또한 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은 완전한



영양과 합리적인 관리로부터 시작됨을 알고 '사료업'에 관심이 생겼다.

대내적으로는 학우들과 취업 준비 동아리를 창설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축산기사와 같은 필요한 자격증들을 취득하였다. 교내 신문에 열심히 사는 청춘이라는 타이틀로 실리는 등 '취업 몰입도'를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이어가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을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흥미를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사람과 기업을 대하며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영업'이라는 직무에 관심을 갖게 했다. 대내외적인 활동을 통해 '사료 영업'이라는 방향을 잡은 것이다.

방향을 잡자 기회가 왔다. 축산·수의 분야의 기업체와 기관, 협회가 참여하는 '제1회 축산·수의 분야 취업·창업 박람회' 개최된 것이다. 취업 준비 동아리 회원과 함께 박람회에 참여하여 기업별 채용 일정이나 채용 인원, 채용 프로세스와

면접 시 중점 사항 등 취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은 실무진과 임원진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자리였다. 각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나 회사의 장점과 비전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이에 맞춰 기업이 원하고,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맞춤형 취업 준비가 가능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세계적인 기술로 한국 축산업을 선도하는 카길애그리퓨리나에서 국내 축산업과 함께, 회사와 함께,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축산인이 될 수 있었다.

“배는 항구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학교라는 항구에서 사회라는 바다를 향해하는 첫 번째 단계로 나침반을 든 후배님들 앞에는 나아갈 수 있는 많은 길이 있고, 그만큼 많은 기회와 고민의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 방향을 잡을 때 많이 흔들리고 힘들겠지만, 다양하고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 취업과 인생에서의 1등 항해사가 되길 바란다. 이번 채용시즌은 물론 이어질 취업의 바다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님들이 기분 좋은 항해를 하기를 기원한다. 🚢